

2011년도(제53회) 사법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I. 개 요

지난 4월 9일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합격선과 선발인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합격선은 선발인원의 대폭적인 감소(2011년 1447명, 2010년 1963명)와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을 고려한 변수들로 인해 작년보다 무려 평균에서 3점(2011년 78.25점, 2010년 74.85점)을 훌쩍 넘는 선에서 확정되었다.

법무부는 표준점수제의 도입으로 선택과목에서의 불균형을 개선해오고는 있으나, 올해도 선택과목으로 인한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은 여전했다. 기본 3법에서는 점수가 낮았지만 선택과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얻어 합격한 사례들도 비밀비재하다. 특히 노동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합격자 중에서 법학전공자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 3.2%가 상승한 1191명으로 확인되었고, 여성합격자도 전년대비 3.3%의 증가를 보여 498명이 합격하였다.

올 6월달에 있을 예정인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경쟁률(예정인원: 700명)은 4.91:1로 전년과 비교(2010년 5.35:1)하여 소폭 낮아졌다.

II. 1차합격자 각종 현황

1. 합격자 수

1,447명 / 응시자 : 14,449명 (경쟁률 9.98:1)

※ 전년도 8.67 : 1 (응시인원 17,028명)

2. 최저 합격점수

총점 273.89점 (만점 350점, 평균 78.25점)

※ 전년도 최저 합격점수 : 총점 262.00점, 평균 74.85점

3. 성별 합격자 비율

남자 : 949명(65.58%), 여자 : 498명(34.42%)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년도(31.1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음

4.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법학 전공자 : 1,191명(82.31%), 비전공자 : 256명(17.69%)

※ 전년도(20.89%)에 비하여 비전공자 비율이 약 3.20% 하락

[최근 5년간 성별/전공별 합격현황]

연도 구분	2007년(49회)	2008년(50회)	2009년(51회)	2010년(52회)	2011년(53회)
남자	1,938명 (69.02%)	1,709명 (68.06%)	1,790명 (69.27%)	1,352명 (68.87%)	949명 (65.58%)
여자	870명 (30.98%)	802명 (31.94%)	794명 (30.73%)	611명 (31.13%)	498명 (34.42%)
법학 전공자	2,223명 (79.17%)	1,937명 (77.14%)	2,119명 (82.00%)	1,553명 (79.11%)	1,191명 (82.31%)
비전공자	585명 (20.83%)	574명 (22.86%)	465명 (18.00%)	410명 (20.89%)	256명 (17.69%)

5. 금년 합격자 수 결정시 고려사항

(1) 선발인원 감축 기조 유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종전과 같은 정도의 1차 선발인원 감축 기조 유지

※ 2007년 2,808명 ⇒ 2008년 2,511명 ⇒ 2009년 2,309명 ⇒ 2010년 1,963명 ⇒ 2011년 1,447명

(2) 제2차시험 경쟁률 적정 선 유지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계획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수준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2차시험 경쟁률이 종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였음

※ 2009년 4.57:1, 2010년 5.35:1, 2011년 4.97:1

6. 주요 대학 합격자 수

서울대 255명

고려대 208명

연세대 182명

성균관대 117명

한양대 107명

이화여대 72명